

## 接續副詞 研究(Ⅲ)

— ‘그리고’를 중심으로 —

金 美 先

(中央大 講師)

### 차 례

1. 序 論	3.1.3 [同時]
2. 形態分析	3.2. 文脈意味
3. 意味分析	3.2.1 [對立]
3.1. 基本意味	3.2.2 [讓步]
3.1.1 [羅列]	3.2.3 [轉換]
3.1.2 [繼起]	4. 結 論

### 1. 序 論

이 글의 목적은 文接續에서 順接機能을 하는 接續副詞 ‘그리고’의 形態를 分析해 보고 여러 가지 意味機能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제까지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등과 같은 接續副詞에 관한 연구는 주로 品詞論에 치우쳐 왔다. 즉, 이 單語들에 대해 한편에서는 ‘副詞’의 하위 부류에 넣어 ‘接續副詞’로 다루려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接續詞’라는 獨立品詞로 설정하려고 하는 데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連結語尾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고 深度있게 이루어진 데 비해, 상대적으로 形態의 特性과 統辭論的 機能, 그리고 文脈的 意味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文分析의 범위가 談話로 확대되면서 그에 따라 接續副詞의 機

能과 意味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그 동안 統語論의 研究範圍는 文(sentence)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文 上位單位에 대한 논의가 不充分했던 것이다. 특히, 소위 接續副詞라 하는 부류는 文과 文, 段落과 段落의 意味的 連結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文脈을 배제하고 文을 최대의 分析單位로 파악하는 構文論의 體系內에서는 연구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談話라는 文보다 더 큰 단위에서 接續副詞를 다루면서 이제껏 설명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차츰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研究의 範圍를 談話로 확대하여 接續副詞를 고찰하는 데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실제 사용된 談話를 分析하여 接續副詞 '그리고'의 文脈의 意味를 파악하는 데 注力하였는데, 이 글에서 이용한 口語體 資料는 '10시 임성훈입니다'(1997년 8월 4일·5일 방영분)이며, 文語體 資料는 중·단편 小說과 신문 광고문, 국어 교과서 지문 등이다.

## 2. 形態分析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接續副詞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形態素 分析을 할 수 있다.

$$(1) \text{ 그리고 : } \left[ \begin{array}{l} \text{그리} + \text{하} + \text{고} \\ \text{그리} + \text{하} + \text{고}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그리고} \\ \text{그러고} \end{array} \right.$$

위의 분석에서 보듯이 連結語尾만 제외하면 '그리하/그러하'라는 用言의 語幹部만 남게 된다. 따라서 '그리고'는 '그리하다'와 '그러하다'의 活用形이 굳어져 語彙化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指示形容詞 '그러하다'와 指示副詞 '그리'와 '하다'의 복합으로 이루어진 '그리하다'의 活用形이 化石化된 形態가 接續副詞인 것이다.<sup>2)</sup> 따라서 위의 분석을 통해, '그리/그러'는 指示의 機能, '하'는 代用的 機能, '고'는 連結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현숙(1989: 430)은 '그리'는 방법이나 상태를 대용하고, '그러'는 방향과 관련되는 동작을 대용

1) 談話分析에서는 '接續副詞'라는 용어보다는 '담화대용표지'(신현숙, 1989) 또는 '담화표지'(안주호, 1992)라고 쓴다. 그렇지만, 本稿에서는 단순한 담화의 연결 표지로만 보지 않기 때문에 '접속부사'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2) 柳穆相(1970) 참조.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指示形容詞의 形態分析에 대해 都守熙(1988:18)에서는 “代名詞 ‘이, 그, 저’에 接辭 ‘리’가 結合하여 基幹要素인 ‘이러, 그러, 저러’가 되었고 거기에 또다시 ‘用言’ 要素인 ‘하다’가 合成하여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가 되었는데, 이들은 또다시 縮約作用으로 動的 狀態를 表示하는 ‘이러다, 그러다, 저러다’類와 靜的 狀態를 表示하는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類로 區分할 수 있는 段階까지 發展한 것”이라고 하였다.

15세기의 文獻에서 나타난 接續副詞의 形態를 통해 指示形容詞의 基本形을 想定해 볼 수도 있다. 그 당시 문헌에는 ‘그러하나, 그러하니’보다는 ‘그러면, 그러나, 그렇지, 그러므로’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로써 ‘그러하다’의 活用정보다는 ‘그러다’의 活用형이 더 자주 쓰였음을 알 수 있다.<sup>3)</sup>

- (2) ㄱ. 들좁고 깃거하거니와 그러나 혼디하너고로 해여흔던(月印釋譜 八 93)  
나. 그러면 황세에 그 늙애를 브터 아라든 사름이 아디몰하리로다 괴 언  
매나 하며(南明泉諺解 下)  
ㄷ. 혼변 덤을어 그죽하면 몸이 못도록 고티디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남진  
아 죽어도 지가 아니하느니라(小學 卷二)  
ㄹ. 어진 도리를 닦다 문홀시 그런드로 이제 귀보줄 문벗니 출히 주글죄  
를 슈홀디언명(觀念要錄 5)

‘그러나’와 ‘그러면’과 같은 接續副詞는 위의 예처럼 中世文獻이나 近世文獻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비해, ‘그리고’의 形態는 中世文獻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17세기의 문헌에 ‘그러하고’의 形態가 나타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이 文章을 이어주는 接續副詞로서가 아니라 形容詞 ‘그러하다’의 活用形으로 쓰였다. 따라서 速斷하기는 어려우나 ‘그리고’의 形態는 近世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 (3) 공조 못든면 또 그러하고(馬經抄集諺解 上 10)  
누로나 드나 다 그러하고(馬經抄集諺解 上 19)

20世紀에 들어서서 接續副詞는 使用頻度가 잦아지면서 양적으로 많이 팽창하

---

3) ‘그러다’를 基本形으로 삼는 문제는 좀더 많은 연구가 선행된 다음에 단정지를 수 있으리라 본다.

여 그 동안은 잘 찾아보기 힘들었던 形態가 많이 눈에 띈다. '그런즉,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하고' 등 그 數도 다양해지고, 쓰임에서도 文의 연결에만 쓰이던 接續副詞가 句接續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 때, '그리고'도 자주 登場하는 것으로 보아 19世紀 말부터 사용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sup>4)</sup> 이 시기에는 '그리하고'와 '그리고', '그러고'의 형태가 혼용되었다.<sup>5)</sup>

- (4) ㄱ. 『老兄의 姓名은 무를 것도 업소 우리는 다 兄弟間인걸』하며 갈수록 더욱 異常하더라 그리하고 老僧이 慰勞도 하며 激動도 하여 어찌까지라도 兄弟間에 하듯하니 旣발똥은 感激한 마음이 骨髓에 사모치나(青春 第一號)
- ㄴ. 우리가 在學中 兄과 갓치 잇슬 때에도 歷史地理와 詩歌小說 등을 질겨 하지 안았습닛가. 그러고 累累屑屑 한 俗間生活邊事는 關係하기 싫혀 하는 줄도 짐작하시겠습니까.(青春 第十一號)
- ㄷ. 그는 그 瞬間이 지낸 후부터 무슨 悲哀와 鬱鬱이 그의 가슴에 닥쳐왔다. 그리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기 오라비를 속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잊혼날 하로종일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白潮 第一號)

### 3. 意味分析

單語의 形成基盤으로 보았을 때, 接續副詞는 기본적으로 '指示, 代用, 連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國語의 特性上 연결의 기능은 語尾와 助辭가 전담하고 있으므로, 接續副詞의 關係意味는 連結語尾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接續副詞 '그리고'의 文脈的 意味把握을 위해서는 連結語尾 '-고'의 意味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김진수(1989: 83)에서는 '고'에 '동시성과 계기성, 인과성, 대립성(혹은 선택성), 반복성의 의미'들이 있다고 하였고, 전해영(1989: 34-79)에서는 '나열, 동시, 계기, 대립'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은경(1990: 15-22)에서는 '나열, 동시, 계기, 대립, 이유·원인'의 意味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그리고'의 意味機能을 연구한 장정줄(1983)에서는 '계기, 이유, 나열, 대립, 전환, 동시'

4) '그리고'의 어형에 대한 고찰은 많은 자료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차후에 논의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5) 拙稿(1993), 接續副詞 '그러나'類에 대한 研究, 참조.



등으로 나누었다.

이제까지는 連結語尾나 接續副詞의 意味研究에서 대부분은 '基本意味'와 '文脈意味'를 구분하지 않고 記述하였다. 그러나 본 研究에서는 接續副詞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구분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 하면 接續副詞의 경우는 하나의 文에서 意味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文과 文 사이의 관계에 따라 意味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發話狀況에서 여러 가지 意味로 확대되어 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을 간과하고 지나쳐 버릴 경우에는 의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 文脈意味를 통해 基本意味를 추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基本意味를 먼저 設定해 놓고 文脈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意味로 사용되는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 3.1. 基本意味

최현배(1985 : 311)에서는 '별림꼴(羅列形)'을 '때 별림꼴(時間的 羅列形)'과 '얼안 별림꼴(空間的 羅列形)'으로 나누고, 연결어미 '고'를 얼안 별림꼴과 때 별림꼴 중의 차례 별림꼴(順次羅列形)로 분류하였다. 이에 남기심(1978)은 연결어미 '-고'의 의미에 '동시적나열'을 추가하여 세 가지 용법이 있다고 밝혔다.

連結語尾 '-고'의 基本意味로 [羅列]을 드는 것처럼 接續副詞 '그리고'에서도 [羅列]의 意味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羅列]이란 '죽 벌여 놓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대립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意味機能을 [羅列], [繼起], [同時]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 3.1.1 [羅列]

'羅列'은 先行文과 後行文이 並列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두 개 이상의 文章을 독립적으로 대등하게 연결하기 때문에 統辭적으로 對等關係를 유지한다.

(5) ㄱ.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만일 공부라도 좀 하는 우등생이었다면, 기술교사가 그렇게까지 사납게 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 기술 교사가 그렇게까지 사납게만 굴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렇게까지 사납게 반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고종석, 祭亡妹)

ㄴ. 봄에는 새싹이 파릇파릇 돌아납니다. 여름에는 푸른 잎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산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앙상한 가지를 포근히 덮어 줍니다. (초등학교 읽기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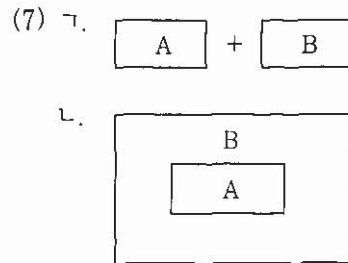
- ㄷ. 찰스쥬르당의 신사화가 4만 5천원, 숙녀화가 3만 5천원,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쌈지, 카운테스마라 핸드백이 3만원부터입니다. (현대백화점 광고)
- ㄹ. 먹이를 먹을 때는 알곡 사료를 먹지 않고 짚만 골라 먹어. 그리고 일할 때에는 전혀 머리를 쓸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똑심만 쓴단 말이야. 세상에 그보다 더 미련한 놈은 없을거야. (초등학교 읽기 4-1)

接續副詞 '그리고'가 單語나 句節의 사이에서 쓰일 때는 대부분 [羅列]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의 '그리고'는 생략해도 의미에는 큰 변화가 없다.

- (6) ㄱ.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늙어 가는 내 주변의 여자들을 생각했다. 맨 먼저 어머니를 다음엔 고모와 이모를, 그리고 역시 그 과정을 거쳐갈 내 친구들 그리고 나. (신경숙, 깊은 숨을 쉴 때마다)
- ㄴ. 멀치 우린 국물에 국수 한 덩이를 말고 잘게 썬 파, 고춧가루, 김 부스러기 그리고 단무지를 서너 조각 얹은 것이 1,000원짜리 '우동'이고, 국물에 파 한 숟가락만 띄운 것이 300원짜리 '국물'이다. (윤영수, 기사와 건달의 섬)
- ㄷ. 모노크롬[單色主義]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손가락의 효용성에 대해서 새삼 왈가왈부할 것까지도 없다. (이제하, 유자약전)
- ㄹ. 두 개의 여행 가방과 계절이 지난 옷 보통이 그리고 얼마 전까지 묵었던 천안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상여금과 월급이 자혼의 재산 전부였다. (한강, 여수의 사랑)

위의 예 (6)에서처럼 '그리고'가 單語나 句節의 連結에 쓰였을 경우에 英語의 等位接續詞 'and'와 같은 機能을 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6)</sup> 그러나 接續副詞 '그리고'는 단순히 단어나 구절을 연결시켜 주는 構文上的 接續標識(conjunctive marker)가 아니다. 영어의 接續詞 'and'와 한국어의 接續副詞 '그리고'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6) 양명희(1996 : 100)는 單語의 連結을 들어 '그리고'에서는 '대용의 기능은 사라지고 接續의 機能만 나타난다'고 보았으나, 單語의 連結이나 文의 連結이나 그 接續形式은 같다고 본다.



위의 예에서, 영어는 (7, ㄱ)처럼 'A와 B'의 형태적 결합이지만, (7, ㄴ)의 韓國語에서 接續副詞는 'A와 AB'의 意味上 接續이다. 즉, 영어의 等位接續詞는 단순히 文章要素간의 連結關係만을 나타내지만, 한국어의 接續副詞는 앞뒤의 두 문장을 의미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후행문을 修飾한다. 즉, 先行文의 意味를 받아서 後行文에 연결시키기 때문에 文章간의 意味를 結束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and'는 그것이 연결시켜 주는 앞뒤의 요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지만, '그리고'는 항상 後者쪽에 歸屬되어 있는 것이다.

[羅列]의 意味를 나타낼 때에는 [添加]의 意味가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後行文에 補助助辭 '도'를 붙여 [添加]의 意味를 강조하기도 한다.<sup>7)</sup>

- (8) ㄱ. 이모는 사정 얘기를 듣고 날 크게 책망하셨지만, 곧 서울에 전화를 해어머니를 안심시킨 뒤 어머니에게 자신이 얼마간 데리고 있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내게도 선언했다.(고종석, 祭亡妹)
- 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얼마나 비싼지 당신은 몰라요. 그리고 수산시장도 새벽에 가야 도매금으로 사지 아침 먹고 어물어물하다가 늦게 가면 소매나 마찬가지라구요.(유시춘, 아우의 인상화)
- ㄷ. 이렇게 쓰고 보니 내가 김남주 씨와 특별한 친분이라도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나는 그를 잘 알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 글도 김남주 씨를 추모하기 위해 쓰는 것도 아니다.(이남희, 세상 끝의 골목들)
- ㄹ. 영수의 행동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말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영수라면 어떻게 하였을지도 말하여 봅시다.(초등학생 말하기·듣기 2-1)

7) 柳穆相(1993 : 62)에서는 補助助辭를 補添的 助辭라 하고, '도'는 補意的인 助辭로 다루었다.

### 3.1.2 [繼起]

[繼起]는 前後의 事件이나 行爲가 順次的으로 일어나는 것으로,<sup>8)</sup> 하나의 행위가 끝난 다음에 바로 다른 행위가 이어지거나,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일어나기도 한다. 즉, 先行文의 事件의 進行 후에 後行文의 事件이 일어나는 意味關係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前述한 [羅列]은 對等接續關係인데 비해, [繼起]는 從屬接續關係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 (9) ㄱ. 사장은 느릿느릿 도자기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백자의 몸부분을 스승의 뺨에 잠깐 갖다 뒀다.(이제하, 강설)  
 ㄴ. 나는 거기서 군대를 막 졸업한 복학생인 한 남자를 만났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8년째 살고 있다.(차현숙, 나비의 꿈, 1995)  
 ㄷ. 수용자들이 박수를 치려 하자 채이스 리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로 두 손을 허공으로 들어 박수를 막았다. 그리고, 흥얼흥얼 중얼거리듯이 노래를 계속했다.(최인석, 노래에 관하여)  
 ㄹ. 둘이 나가고 셋이 나간다. 그리고 하나가 다시 들어오고 다른 여인 둘이 또다시 들어온다. 그 동안에도 그녀는 깨지 못하고 있었다.(이제하, 유자약전)

‘그리고’가 ‘繼起’의 의미로 해석되는지는 ‘그리고 나서’로 대치시켜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서 ‘그리고’는 ‘그리고서’의 縮約形으로 볼 수 있다.

- (9)′ ㄱ. 사장은 느릿느릿 도자기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 나서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백자의 몸부분을 스승의 뺨에 잠깐 갖다 뒀다.  
 ㄴ. 나는 거기서 군대를 막 졸업한 복학생인 한 남자를 만났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서 8년째 살고 있다.  
 ㄷ. 수용자들이 박수를 치려 하자 채이스 리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로 두 손을 허공으로 들어 박수를 막았다. 그리고 나서, 흥얼흥얼 중얼거리듯이 노래를 계속했다.  
 ㄹ. 둘이 나가고 셋이 나간다. 그리고 나서 나서 하나가 다시 들어오고 다른 여인 둘이 또다시 들어온다. 그 동안에도 그녀는 깨지 못하고 있었다.

8) 서정수(1982)에서는 ‘-고’의 意味를 순차적 연결과 비순차적 연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서정수(1982)에서는 {-고} 자체의 순차적 연결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고} 연결문이 순차성을 드러내는 것은 先行用語尾 [-지속]의 자질을 보일 때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9, ㄴ)의 경우 '만났다'라는 행위가 단절이 된다면 '결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 연결, 즉 [繼起]의 의미는 先行用語尾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리고' 자체의 의미이며, 그것은 화용론적인 상황에 의해 더 확연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김홍수(1977)에서는 繼起의 連結語尾 '-고서'는 '시간적 선행이나 동작주의 의도를 전제로 삼고 있다'고 하고, "-고의 단절성을 보완하여, 행위의 시간적, 논리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가 [繼起]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그리고는'의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는'은 '그리고 나서' 또는 '그리고서는'의 縮約形式으로 볼 수 있다. 蔡琬(1976: 109)는 "고'가 이끄는 절이 뒤에 오는 節에 비해 시간상 바로 앞서는 경우에만 '는'을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는'은 對照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繼起'의 의미를 지닐 때에만 補助助辭 '는'이 붙을 수 있는 것이다.

- (10) ㄱ. 서두의 논리를 되돌려서 없었던 논리로 만들어 보려고 그는 이것저것 급하게 예증(例證)을 찾는다. 그리고는 폭탄 같은 선언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는다.(이제하, 밤의 창변(窓邊))
- 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세 아들은 앞을 다투어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보물을 찾기 위해 밭을 한 구석도 남김없이 파헤쳤습니다.(초등 읽기 3-1)
- ㄷ. 처녀는 서성이더니 안의 의자를 베란다로 내놓았다. 그리고는 창을 타고 베란다로 나왔다.(신경숙, 깊은 숨을 쉴 때마다)
- ㄹ. 우리는 복도로 나왔다. 그리고는 복도 끝 비상 계단의 층계참에 나란히 서 담배를 피웠다.(고종석, 祭亡妹)

### 3.1.3 [同時]

[同時]는 先行文의 행위와 後行文의 행위가 시간적 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김진수(1989: 78)에서는 '선행문과 후행문의 사건발생이 동시적이냐 계기적이냐의 차이는 상(aspect)의 차이를 초래한다.'고 하면서 동시적일 때에는 '미완상 혹은 진행상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 (11) ㄱ. 그녀는 날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분명했다. 그리고 눈동자에 물기가 가득했다. 슬픔이 이글거렸다, 맑은 슬픔이.(고종석, 祭亡妹)
- ㄴ. 영우는 순식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순식이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고개를 꺾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김 중사의 군홃발이 영우의 턱을 내질렀다.(최인석, 노래에 관하여)
- ㄷ. 『늑대처럼 세상을 달리는 여성들』이라는 책 표지를 본다. 지적이고 강인한 서양 여자 넷이 활짝 웃고 있다. 우연인지 편집자의 의도인지는 몰라도 그녀들은 모두 이혼을 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차현숙, 나비의 꿈, 1995)
- ㄹ. 김승의 울부짓음이 들려왔다. 몸서리가 나는, 소름이 끼치는 소리, 영우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리고, 그제야 순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최인석, 노래에 관하여)

위의 (11, ㄱ)은 그녀가 눈에 물기를 머금은 채 날 안쓰럽게 바라본다는 內容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行爲와 우는 行爲가 동시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11, ㄴ)에서는 영우가 순식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김 중사가 발길로 찬 경우로 事件이 同時에 발생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11, ㄷ)에서의 ‘그리고’는 그녀들이 모두 離婚한 사실과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사실을 ‘羅列’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離婚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成功한’ 것으로 해석하여 [同時]로 본다. (11, ㄹ)은 영우가 소름이 끼치는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일어난 것과 동시에 순식이가 그 主人公임을 깨닫는 것이다.

위의 例에서 볼 때, ‘그리고’가 [同時]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동일주어가 오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11, ㄱ)처럼 비동일 主語가 오기도 한다.

### 3.2. 文脈意味

文脈意味는 ‘그리고’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文脈의 意味關係에 따라 파악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제 言語生活에서 사용되고 있는 文脈의 대부분을 살펴야만 完成度 높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2.1 [對立]

先行文과 後行文의 敘述語의 意味가 相反됨에 따라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가 [對立]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對立]은 ‘그리고’ 자체의 의미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羅列]에서 副次的으로 派生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12) 혜원이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살아 있다.(고종석, 祭亡妹)

위 例文을 [對立]을 나타내는 接續副詞 '그러나'로 바꾸어 써 보면 다음과 같다.

(12)' 혜원이는 죽었다. 그러나 나는 살아 있다.

만일 接續副詞가 단순히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接續標識라면 (12)와 (12)'는 文脈의 意味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이 두 文章을 비교해 볼 때 약간의 意味差異를 발견할 수 있다. 즉, (12)는 혜원이가 죽은 사실과 내가 살아 있는 사실을 단순히 獨立的으로 연결해 놓고 있어서 혜원의 죽음이 '내' 현실과 直接的인 因果關係가 성립되지 않음을 表現하고 있다면, (12)'는 혜원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혜원이'와 '나', '죽음'과 '살'의 對立시켜 놓고 있는 것이다.

### 3.2.2 [讓步]

[讓步]는 '기대되었던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한 원인이나 이유, 또는 논점을 양보하는' 의미적 관계이다.(이원표 옮김, 1997 : 116)

- (13) ㄱ. 나는 교사가 판서를 하고 친구들이 그걸 열심히 베끼는 동안 몰래 소설책을 꺼내 읽거나 교과서 여백에 낙서를 하거나 했었다. 그리고 나의 그런 형태가 운 좋게도 고등학교 2학년 5월 어느 날까지는 교사들에 의해 묵인되었었다.(고종석, 祭亡妹)
- ㄴ.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랬듯, 혜원이가 죽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 1962년 이전처럼, 그 아이가 죽은 1994년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오롯할 것이고 감쪽같은 것이다.(고종석, 祭亡妹)
- ㄷ. 순식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최선을 다 할수록 음정과 박자는 더욱 엉망이 되어갔다.(최인석, 노래에 관하여)
- ㄹ. 그는 1961년 5월 16일의 그 새벽, 헌병대의 총탄이 날아오는 한강 인도교를 건너던 그때 이미 자기 운명의 찻잔을 마지막 한 숟가락 까지 다 재고 있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 갔다.(소설 책 '인간의 길' 광고문)

위의 例文에서 (13, ㄱ)은 授業中에 만났을 하게 되면 教師들에 의해 제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默認되었다는 것이고, (13, ㄴ)은 혜원이가 죽으면 세상이 달라질 것만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아무런 變化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13, ㄷ)은 最善을 다해 노래를 하면 점점 더 잘 부르는 것이 당연한데도 오히려 엉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13, 4)는 이미 자신의 運命을 알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는데도 곳곳하게 자신의 길을 갔다는 것을 表現하고 있다. [讓步]의 의미를 나타내는 위의 文章들은 '그리고'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넣으면 의미가 선명해진다. 例文(13, ㄴ)은 이미 本文 內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 있으므로 굳이 대치시키지 않아도 意味把握이 될 것이다.

(13)' ㄱ. 나는 교사가 판서를 하고 친구들이 그걸 열심히 베끼는 동안 몰래 소설책을 꺼내 읽거나 교과서 여백에 낙서를 하거나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런 행태가 운 좋게도 고등학교 2학년 5월 어느 날까지는 교사들에 의해 묵인되었다.

ㄴ.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랬듯, 혜원이가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태어난 1962년 이전처럼, 그 아이가 죽은 1994년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오롯할 것이고 감쪽같은 것이다.

ㄷ. 순식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선을 다할수록 음정과 박자는 더욱 엉망이 되어갔다.

### 3.2.3 [轉換]

[轉換]은 前述한 內容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고 새로운 內容으로 話題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안주호(1992: 32-36)에서는 '담화 참여자가 화제를 바꾸거나 그 화제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진행되는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쓰이는 표지'를 '전환 표지'라 하고 그 동안 接續副詞로 다루어졌던 단어들을 모두 포함시켰다. '화제 이탈성'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었는데, A그룹의 것들이 전(前) 화제와 일관성의 경향이 가장 짙은 것이고, B가 다음이고, F는 前의 화제와는 아주 상이한 것으로 관련성이 가장 적다.<sup>9)</sup>

9) 안주호(1992)에서는 '그리고'를 轉換標識에 넣기는 했지만, 具體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그룹으로 나누어 본다면 B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14) ㄱ. “고마워. 그럼 난 갈게. 그리구 아까 했던 말 잊지 마.”(이응준, 이제 나무표지로 간다)

ㄴ. 갑 : 아,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이 여사님을 즐겁게 해주시는 모양이지요?

을 : 네.

갑 : 하하하...여러 가지로 그냥 알아 듣도록하겠습니다. 그리구요, 로맨틱 하신 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10시 임성훈입니다.)

ㄷ. 갑 : 총평, 운순하다. 그러고 근면 그리고 활달. 문학을 좋아셨나 봐요, 그 때.....

을 : 네, 그렇게 써 있네요.

갑 :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을 : 급장이라고 써 있네요.(10시 임성훈입니다.)

위의 예 (14, ㄱ)은 소설의 對話體 文章에서 뽑은 것이고, (14, ㄴ)과 (14, ㄷ)은 對談 프로그램을 緣攄한 것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添加]라고 볼 수도 있으나, 진행되고 있던 話題에 덧붙이는 의미보다는 이전의 화제를 마치고 새로운 화제로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는 [轉換]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위의 예 (14)에서 쓰인 ‘그리고’는 [轉換]의 의미를 가진 ‘그런데’로 대체시켜 보면 훨씬 더 의미가 선명해진다.

‘그런데’가 [轉換]의 의미로 쓰인 예는 다음과 같다.

(15) 사회자 : 저도 괜히..... 이렇게 편안한 차림으로 앉으신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넥타이를 끄르고 싶은데..... 끄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팽과리 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정말 - 신명나게 치시고 그 숨씨가 벌써 한두 해 된 숨씨가 아니시고 오래된 숨씨인 것 같은데요?

(14)의 예와 비교해 보았을 때 (15)의 예는 그 이전의 話題와 새로운 話題 사이의 관련성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즉 話題의 이탈성이 ‘그리고’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4. 結 論

지금까지 接續副詞 '그리고'의 形態의 特性을 分析하고 意味機能을 살펴보았다.

1. '그리고'는 다른 接續副詞와 마찬가지로 대용언 '그러하다/그리하다'를 기반으로 形成되었다. 즉,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그리고 :  $\left[ \begin{array}{l} \text{그리} + \text{하} + \text{고} \\ \text{그러} + \text{하} + \text{고}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그리고} \\ \text{그리고} \end{array} \right.$

위 分析에서 '그리/그러'는 指示의 機能, '하'는 代用的 機能, '고'는 連結의 機能을 담당한다.

2. 接續副詞의 경우는 하나의 文에서 意味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文과 文 사이의 關係에 따라 意味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基本意味와 文脈意味로 구분하여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리고'의 의미 기능을 살펴본 결과 가장 기본적이며 대표적인 의미는 [羅列]이다. 따라서 기본 의미는 [羅列]을 중심으로 하여 [繼起], [同時] 등을 들었으며, 문맥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는 의미로는 [對立], [讓步], [轉換] 등을 들었다. 특히, 문맥 의미 같은 경우는 실제 언어 사용에 나타나는 모든 문맥의 의미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 ◇ 參 考 文 獻 ◇

- 강상호(1989), 조선어입말채연구, 사회과학출판사.  
 김승곤(1977), "연결어미 '-고'에 대하여", 建大學術誌 제21집.  
 \_\_\_\_\_(1981), "한국어 연결형 어미의 의미분석 연구1", 한글 173·174, 한글학회.  
 김영희(1988), "등위접속문의 통사 특성", 한글 201·202, 한글학회.  
 김일웅(1982), "우리말 대용어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진수(1989), 국어 접속조사와 어미 연구, 탐출판사.  
 김홍수(1977), "계기의 '-고'에 대하여", 國語學 5, 국어학회.  
 남기심(1978), "국어연결어미의 활용론적 기능 -나열형 '-고' 중심으로 -", 延世論叢 15, 연세대학교.  
 노대규(1992), "국어의 입말과 글말의 의미론적 특성 연구", 梅芝論叢 第9輯, 연

- 세대학교 매지 학술 연구소.
- 서정수(1996), 수정 증보판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부.
- \_\_\_\_\_(1982), “연결어미 {-고}와 {-어(서)}”, 言語와 言語學 제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 徐泰龍(1987), “國語活用語尾의 形態와 意味”,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현숙(1989), “담화대용표지의 의미 연구 : ‘그래서/그러니까/그러나/그렇지만’을 대상으로”, 국어학 19, 국어학회.
- 柳穆相(1970), “접속어에 대한 고찰”, 한글 146호, 한글학회.
- \_\_\_\_\_(1985), 連結敍述語尾 研究, 集文堂.
- \_\_\_\_\_(1993), 韓國語文法의 理解, 一潮閣.
- 梁明姬(1996), “현대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평현(1992),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한신문화사.
- 이원표 옮김(1997), JAN RENKEMA 지음, 담화연구의 기초, 한국문화사.
- 이은경(1996),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주행(1991), “이른바 특수조사 {은/는}에 대한 고찰”, 玄山 金鍾埴博士 華甲紀念論文集, 集文堂.
- 이효상(1993), “담화·화용론적 언어분석과 국어연구의 새 방향, 주시경학보 11집.
- 장정중(1983), “접속사 ‘그리고’ 연구”, 어문학 교육 제6집.
- 蔡 琬(1976), 助詞 ‘-는’의 意味, 國語學 4, 國語學會.
- 허 응(1992), 우리 옛말본 -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 문화사.
- 홍종화(1993), “대용어와 연결사, 조응 및 연계”, 언어와 언어학 제19집.
- 市川 孝(1978), 國語教育のための文章論概説, 教育出版.
- Bolinger, Dwight(1977), Meaning and form, London : Longman.
- Stubbs, Michael(1983), Discourse Analysis-The Sociolinguistic Analysis of Natural Language, Oxford : Basil Blackwell.